

先秦時代 중국 사회를 운용했던 책임론의 변화양상*

천 영 미**

<目次>

I. 들어가는 말	IV. 西周-春秋時代의 사회변동과 의식 구조의 변화양상
II. 사이버네틱스 이론	V. 戰國時代의 사회변동과 의식구조 의 변화양상
1. 무조직역량	
2. 초안정시스템	
III. 殷周 교체기의 사회변동과 의식구 조의 변화양상	VI. 나가는 말

<국문 초록>

본고는 先秦時代 중국사상사에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주된 통치기제가 ‘책임성’임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 성과들처럼 선진시대의 사상사를 殷代-西周時代-春秋時代-戰國時代로 나누어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이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다보면, 각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요소들을 놓치는 과오를 저지르게 된다. 그리하여 殷代의 神政체제, 周代의 天命思想, 春秋時代의 도덕성 확립, 戰國時代의 강력한 法制 등 시대의 사상적 특징을 이념 중심으로 나열하는 안일함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선진시대의 사상사를 ‘책임성’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고찰하게 되면, 기존 연구들에서 간과했던 요소들을 재발견할 수 있다. 殷代의 神政체제 하에서 최초로 책임성이 배태된 상황, 周代 天命의 상대화와 책임의식 결부를 통해 새로운 통치기획을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0159)

** 성신여자대학교 강사 / rhodachun@gmail.com

세웠던 주왕조의 파격적인 시도, 춘추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제한공과 관중에 의해 기획된 초안정시스템인 覇제도, 사회결속과 화합을 이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각 개인에게 찾고자 했던 공자의 시도, 침략전쟁을 통한 부국강병에서 벗어나 공공복리의 실현을 주장했던 묵자의 노력, 법의 순수한 본질인 大公無私性을 통하여 사회재편성을 시도했던 상앙의 법제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주제어】 책임의식, 패제도, 사회결속, 공공복리, 대공무사성

I.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선진시대의 사상은 殷代-西周時代-春秋時代-戰國時代로 나뉘어 각 시대의 상황 속에서 발생한 특정 ‘이념’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殷代の 사상은 神에게 모든 것을 의탁한 채 천하를 다스리는 神政政治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神의 대리자인 왕은 祭祀와 貞問을 통하여 백성을 다스렸고, 이것을 기록한 갑골문의 해석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은왕조를 멸망시킨 周王朝는 왕조 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天命思想과 정치철학을 결부시켰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서주시대의 사상은 대부분 통치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종법제 확립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인 天命思想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연구자들은 春秋時代에 이르러 봉건제의 붕괴가 사회 불안정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한 채, 공자가 周代에 이룩한 통일왕조를 염원하고, 이를 재건하기 위해 도덕성 확립을 주장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공자의 중심사상인 仁을 도덕성 또는 도덕적 실천의지로 규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戰國時代의 정치사상은 인간성의 회복과 도덕성 확립의 불가능성을 직시한 법가 계열 사상가들이 제시한 강력하고, 합리적인 法制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한비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각 시대의 사상사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 속에서 시대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했던 통치자들의 공통된 통치기제를 발견할 수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그 핵심 통치 기제는 바로 ‘책임성’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진시대를 운용했던 핵심 통치기제를 ‘책임의식’으로 규정하고 그 변화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중국 사상사에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주된 통치기제가 다름 아닌 ‘책임의식’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先秦時代 중국사상사에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주된 통치기제가 ‘책임의식’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구조의 변화양상을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사회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왕조들은 어떤 형태의 책임의식을 제시하면서 사회를 안정상태로 회복시켜왔는지 고찰해야 하는 것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사회의 변화와 발전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원인을 규명했던 기존의 분산적인 연구방법으로는 그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다. 이에 본고에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여 사회의 변화양상과 혼란, 회복, 발전양상을 분석하고자 사이버네틱스 이론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사이버네틱스 이론 가운데 ‘무조직 역량’, ‘초안정시스템’과 같은 중요개념만을 채택하여 先秦시대의 사회변동과 혼란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조절기제가 바로 ‘책임의식’[초안정시스템]임을 밝히고, 그 변화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사이버네틱스 이론

김관도와 유청봉은 기존의 전통적 분석방법에서 탈피하여 삼자-정치, 경제, 의식구조-간의 상호작용과 관련성에 주안점을 두어 역사의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고자 하였다.¹⁾ 역사발전 이해를 위한 이들의 사회구조 분석이론은 “사이버네틱스(Cybenatics)”이론 이라고 불린다. 사이버네틱스 이론에 입각해서 사회변화와 발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회는 서로 관련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세 하위시스템-정치구조, 경제구조, 의식형태구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²⁾

김관도와 유청봉은 중국 사회가 서주시대에 봉건사회로 진입한 이래 생산력의 부단한 진보와 사회구조의 활발한 변화가 이루어져 왔지만, 진한 이후 2,0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봉건적 사회구조는 기본적으로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에 주목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200-300년을 주기로 이루어진 사회의 주기적 대동란이 장기간의 체제유지와 내적 연계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는 주기적이고 부분적인 붕괴와 조절,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시스템 전체구조에 고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즉 주기적인 대동란은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사회의 무조직역량을 일거에 제거하고, 새로운 왕조가 건립되어 사회가 안정적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김관도와 유청봉은 사회의 무조직역량을 제거하여 사회를 본래의 적응상태로 회복시키는 초안정시스템을 주기적 대동란이라고 결론지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격동의 선진시대의 사회변화와 발전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사이버네틱스 이론에서 제시한 “사회적 변화와 발전 과정에서 부정적응상태가 초래될 때, 세 하위 시스템[정치, 경제, 의식구조]은 사회 전체

1) 김관도, 유청봉 엮음, 김수중, 박동현, 유원준 옮김, 「중국 봉건사회의 장기 지속 원인에 대한 구조 분석」, 『중국문화의 시스템론적 해석』, 천지, 1994. p.101.

2) 朱光潛, 「상층구조와 의식형태의 관계에 대한 질의」, 『중화사원학보』, 1979 제 1기.

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그 작용방식을 변화시켜, 사회를 본래의 적응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주장을 수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회 안정을 촉진시키는 주요인을 주기적 대동란으로만 파악하였던 이 이론의 한계점을 넘어서서, 사회의 안정상태를 회복시키는 조절기제로 ‘의식구조’의 작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한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봉착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고안되는 초안정시스템이 바로 의식구조와 내적연계가 있음을 밝혀내고자 한다.

1. 무조직역량

한 사회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치구조, 경제구조, 의식구조의 관계가 서로 적응상태에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어떠한 사회이건 변화와 발전의 선상에 있을 때, 부적응 상태가 초래되기도 한다. 세 하위시스템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본래의 적응상태로부터 이탈하는 경우에는 사회 전체가 와해와 동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사회의 기존 조직을 와해시킬 수는 있는 사회적 에너지를 ‘무조직역량’이라고 칭한다. 무조직역량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호족 지주들에 의한 토지점병과 중앙정부를 와해시킬 수 있는 지방 할거세력의 출현, 관료기구의 부패와 팽창 등을 들 수 있다.

고대 중국 사회의 하위시스템 가운데 경제구조를 와해시킬 수 있는 무조직 역량은 ‘토지집중현상’이다. 전백찬은 <중국 고대의 봉건사회를 논함>이라는 논문에서 역대의 토지집중 현상에 대해서 “중국봉건통치 계급의 토지에 대한 수탈은 후대로 갈수록 심해진다. 수탈은 비옥한 토지에서 황무지로, 평지에서 산지와 소택지로, 수백 수천 묘에서 수만 수십만 묘의 규모로 계속 확대되면서 농민을 완전히 토지에서 유리시킬 때까지 계속된다.”고 결론지었다. 역대 왕조의 역사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이러한 추세는 농민의 파산, 세수의 감소, 중앙정부의 쇠퇴로 이어졌다.³⁾

3) 김관도, 유청봉 엮음, 김수중, 박동현, 유원준 옮김, 「중국 봉건사회의 장기 지

또한 관료기구의 부패와 팽창은 정치구조를 와해시킬 수 있는 무조직역량이다. 관료중국의 역대 관리 숫자는 왕조에 따라 달랐지만, 왕조 말기의 숫자가 초기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하였다.⁴⁾ 관료기구의 신속한 팽창속도와 극심한 부정부패는 지주, 호족세력과 결합된 또 하나의 무조직역량을 형성하여 토지집중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그 결과 중국 역사상 등장했던 탐관오리의 수적 방대함과 사치⁵⁾, 악독함은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토지 집중 현상에 비례하여 민생의 곤란이 심화되었고, 관료기구의 부패와 팽창에 따라 황제의 권위는 날로 떨어졌다.

2. 초안정시스템

사회의 변화와 발전과정에서 부적응 상태가 초래될 때 세 하위시스템-정치, 경제, 의식구조-은 서로의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안정된 기존 시스템 내에서 하위시스템 일부의 이탈로 초래된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남아있는 하위시스템이 그 작용방식을 급변시

속 원인에 대한 구조 분석], 『중국문화의 시스템론적 해석』, 천지, 1994. p.115.

- 4) 품계를 지닌 고급관료의 숫자는 대부분 왕조마다 수만명에 달했으며, 내외의 하급관리와 서리까지 합치면 10여만에서 수십만에 달하기도 하였다.(『通典』, 『續通典』, 『諸朝文獻通考』) 유능한 통치자였던 唐太宗은 627년에 관직을 효과적으로 통폐합하여 수도 장안의 관리를 600여명으로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20여년 뒤인 高宗 顯慶(656-660) 연간에는 다시 13,400명으로 증가하고 말았다.(范文瀾, 『通史』 제3편) 明代의 관료 역시 초기의 32,400여명에서 200년 후인 萬曆 연간에는 98,000명으로 세 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왕조 말기의 숫자는 초기보다 몇 배나 증가했던 것이다.
- 5) 대부분의 황제들은 관리들의 부패에 대해서 수수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황제 자신의 끝없는 사치와 갈수록 커져만 가는 관료기구 및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염출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수탈에 나섰다. 검소한 생활로 명망이 높았던 明末의 崇禎帝가 매년 궁내의 화장품과 신발값으로 각각 40만량과 5만량씩 지출할 정도였다. 만력 연간에 새로 징수한 부가세는 전체 세입액의 6% 정도였으나, 반세기 후인 승정 연간에는 137%로 늘어났다. 이처럼 한 왕조의 발전과정은 무조직역량의 발전과 확대에 따른 수탈의 확대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고도 할 수 있다.(謝國楨, 『南明史略』)

켜 이탈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본래의 적응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기적이고 부분적인 붕괴 또는 변화과정을 거쳐서 시스템 전체구조에 고도의 안정성을 부여해주는 방식이다.⁶⁾ 이것을 사이버네틱스 이론에서는 ‘초안정시스템’이라고 부른다.

한 예로 각 왕조는 반드시 하위시스템의 이탈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 수단-국가조절작용이나 강력한 통제력-을 총동원하여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면에서의 통제력은 소농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토지 매매의 금지, 제염 제철을 비롯한 일부 수공업의 국영화, 지방 호족에 대한 토지의 몰수 조치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관리 선발제도를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중앙집권적 전제정치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타났다.⁷⁾

III. 殷周교체기의 사회변동과 의식구조의 변화양상

1. 정치구조의 무조직역량-神政체제에 대한 반감과 도전

중국에서 특정 神에 의탁한 정치형태는 바로 은 왕조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은 왕조의 통치제도를 살펴보면 은왕을 정점으로 맺어진 군사적 攻守同盟을 기반으로 형성된 강력한 무력 위에 제사와 貞問을 통한 신정정치로 구성되었다. 은대에는 최고신이었던 上帝를 정점으로 수많은 자연신⁸⁾과 조상신이 존재하였다. 상제는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한 창

6) 김관도, 유청봉 엮음, 김수중, 박동현, 유원준 옮김, 「중국 봉건사회의 장기 지속 원인에 대한 구조 분석」, 『중국문화의 시스템론적 해석』, 천지, 1994. pp.102-103.

7) 김관도, 유청봉 엮음, 김수중, 박동현, 유원준 옮김, 「중국 봉건사회의 장기 지속 원인에 대한 구조 분석」, 『중국문화의 시스템론적 해석』, 천지, 1994. p.114.

8) 자연신은 자연을 신격화한 것인데, 이 자연신은 河神, 水神, 雲神, 雪神, 土神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신 중에서 河神은 농사의 길흉을 장악하고, 水神은

조주였으며, 자연현상과 인간사의 모든 것을 관장하였던 최고의 神인 동시에 은족의 수호신이였다. 은왕조는 이들 신들에 대한 제사를 중앙과 지방에서 범국가적 행사로 성대하게 거행하였다.⁹⁾

은왕은 국가의 제사를 주관하였던 최고의 제사장이었고, 최고 정책기관이었던 貞人 집단의 수장으로 점복을 주관하는 최고의 神官이였다. 최고의 신관이었던 은왕은 신의 뜻을 貞問을 통해서 받았다. 정문은 정인들이 龜甲 또는 獸骨을 태워서 거기에 나타나는 복문을 통해 신의를 계시받는 행사였다. 정인들은 정문을 통해 받은 神意를 은왕에게 보고하면 은왕은 보고된 神意에 따라 정치를 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점복을 통해 신의가 은왕에게 계시되고, 계시된 신의가 은왕을 통해 세속사회에서 실천되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은왕을 신성화하는 것이고, 은왕 통치의 정통성을 증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이었다.¹⁰⁾ 그리고 이를 통해 연맹부족의 제후, 제백들을 이념적으로 복속시켜 은왕 통치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은나라의 모든 제사¹¹⁾는 기본적으로 은왕조의 권력질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조치였다. 이런 제사들 중 ‘伐’¹²⁾이라고 불리는 제

홍수와 수해를 일으키고, 山神은 비를 내리게 하고, 土神은 비와 바람 그리고 농사의 길흉을 좌우하고, 雲神과 雪神 역시 비를 내리는 권능을 가졌던 것으로 인식되었다.

9) 윤내현, 『商王朝史의 研究』, 동인문화사, 1978, p.117.

10) 其塚茂樹, 『古代 殷帝國』, 동경, 1967, p.229.

11) 상나라의 제사 방식은 신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 즉 하늘, 땅, 강물 등에 직접 희생물과 제물을 바치는 방식이였다. 예를 들어 하늘에 있는 신에게 제사 지낼 때에는 사람이나 동물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늘로 날려 보내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또 땅에 있는 신에게 제사 지낼 때에는 땅 속에 사람이나 동물을 매장하거나 제물을 묻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강에 있는 신에게 제사 지낼 때에는 강 속에 사람이나 동물을 빠뜨리는 방식을 선택하였다.(강신주, 『철학의 시대』, 사계절, 2011, p.284)

12) 갑골문을 보면 伐은 戈로 사람의 목을 베는 형상을 본뜨고 있다. 특히 상나라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을 희생물로 바쳤다. 예를 들어 10명의 목을 베어서 제사에 바칠 때 이 희생물의 수를 10伐이라고 세는데, 이때 伐은 희생물을 세는 단위로 쓰인 것이다. 상나라 시대의 묘나 건축물의 기단에는 흔히 시신

사는 매우 중요하다. 이 제사는 사람들의 목을 잘라서 제물로 쓰는 매우 잔혹한 제사였다. 이 제사를 위해 목이 잘린 사람들은 대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노예들이다. 갑골문을 보면, 俘人이나 獲羌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부인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고, 획득은 포로로 잡힌 강족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은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잔인한 人祭를 빈번히 지냈을까?

갑골문을 보면 은왕은 자주 巡狩를 떠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순수는 왕이 사냥을 하면서 자신의 지배 下에 있는 읍들을 순찰하던 행사이다. 즉 넓게 퍼져있는 각 읍들을 직접 통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단위 군대를 동원해서 각 지역을 돌면서 사냥을 하였고, 이를 통해 일종의 무력시위를 감행했던 것이다. 바로 여기에 伐제사라는 잔혹한 人祭가 수행한 역할과 기능이 있었다. 은나라에 복종을 맹세하지 않았던 다른 부족들을 공격하고, 이 때 잡은 포로들을 무자비하게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은나라 왕은 자신의 영역 안에 있던 읍들에게 저항의 대가를 분명하게 각인시킨 것이다. 그리고 은왕조는 자신들의 잔혹한 정치를 상제와 온갖 신들을 위한 불가피한 제사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였다.¹³⁾

그러나 은나라의 잔혹한 신정정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즉 주족과 강족의 연합으로 신정체제가 붕괴된 것이다. 강족과 주족은 은나라에 복종하지 않았던 부족¹⁴⁾들로, 은나라의 대단위 군대를 동원한

의 머리나 혹은 머리가 잘린 시신이 수장되는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나라 사람들이 제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으로 삼았는지 알 수 있다.

13) 강신주, 『철학의 시대』, 사계절, 2011, pp.32-35.

14) 상나라 때 邠과 方은 대립적인 의미를 갖는 개념이었다. 다시 말해 상나라가 지배하던 읍들과는 달리 方이라는 지역은 일종의 타자적 공간, 외부 공간을 의미했다. 즉 상나라는 영토 국가가 아니라 읍제국가였던 것이다. 이는 상나라가 지배하던 여러 읍들 사이에도 상나라의 지배가 미치지 못하는 외부 공간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읍과 읍 사이에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상나라의 지배에 저항했던 많은 소수 부족들이 살고 있었고, 이들은 때때로 읍을 공격해서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였다. (강신주, 『철학의 시대』, 사계절, 2011, p.285)

일종의 무력시위에 반감을 품었고, 포로들에 대한 伐제사를 통한 무력 과시에 분노했다.

은나라로부터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부족은 姜族이었다. 강족은 은나라 서쪽에 있었던 부족인데, 은나라 사람들의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티베트-버마 어군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전체 갑골문을 검토해보면, 은나라 사람들이 人祭를 바칠 때 주로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이 바로 강족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확인된 바로는 제물로 바쳐진 강족의 수가 자그마치 7000여 명이나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은나라와 가장 격렬하게 전쟁을 수행한 부족이 바로 강족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와 같이 강족은 은왕조 내내 은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많은 전쟁을 수행했던 부족이자 동시에, 가장 탁월한 전투능력을 가진 부족이었다.¹⁵⁾

은나라의 신정체제에 도전했던 또 다른 부족은 주족¹⁶⁾이다. 은나라 초기의 것으로 보이는 갑골문자에는 주족에 대한 언급이 빈번히 나오는데, 이것은 은나라 초기에 주족이 그들과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주족은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은나라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즉 은나라를 大邦으로, 스스로를 小邦으로 부르며, 은의 문화를 적극 수용해서 최소한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이미 상주화 되는 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은나라 후기로 갈수록 주족

15) 은나라 내내 은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많은 전쟁을 수행했던 부족이자 동시에 가장 탁월한 전투능력을 가졌던 강족은 주왕조 건립 이후에 周族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주족은 이제 자신들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부족으로 강족을 주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강족으로 하여금 원래 살았던 중국 서쪽을 떠나서 중국 동쪽 산둥성 쪽으로 옮겨가게 하였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강상을 제나라의 제후로 봉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이것은 정치투쟁에서 실각한 강족을 자신들의 터전에서 축출해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 후 고대 중국 사회에서 강족의 영향력은 결코 시든 적이 없었다. 춘추전국시대를 통틀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가장 강대했던 제나라가 바로 강족의 나라였기 때문이다. (강신주, 『철학의 시대』, 사계절, 2011, pp.40-44)

16) 周族은 BC1045년 은나라를 붕괴시킨 후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현재 漢族의 조상으로 자리 잡았다.

에 대한 언급이 갑골문에서 사라졌다. 이것은 은나라 말기에 들어 주족이 은왕조에 거의 투항에 가깝게 복속하였음을 말해준다.¹⁷⁾ 그러나 은나라에 동화된 주족은 그들의 앞선 문물과 제도를 흡수하면서, 다른 부족들과의 연맹을 통하여 은왕조를 붕괴시키는 막강한 세력으로 급부상하였다.

BC11세기에 은나라 변방에 살았던 주족을 중심으로 은나라에 저항하는 조직적인 동맹군이 구성되었고, 이 때 은나라를 공격하는 동맹군의 선봉에 강족이 섬으로써, 은왕조를 붕괴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완수하였다. 이와 같이 은말기의 정치구조를 와해시킨 무조직역량은 잔혹한 신정체제에 반기를 든 주족과 강족의 도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경제구조의 무조직역량—술취함의 ‘격정’에서 비롯된 신정체제 부정

은나라 말기의 피폐한 경제상황 역시 은왕조를 멸망으로 치닫게 한 무조직역량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현상은 바로 은나라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술취함’의 격정이다. 『書經』의 기록에는 은왕조 말기 사회전반에 만연했던 ‘술취함’의 심각성과 비판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다. 『書經』 「酒誥」에서 周의 대변인은 과도한 음주가 은나라의 귀족들에게 가져온 참혹한 결과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모든 기록은 ‘술취함’의 문제를 문자 그대로 다루고 있지만, 술취함에서 우리는 좋은 사회를 가능케하는 신성한 제의적 질서와 예법을 해체시키는 고삐풀린 ‘격정’을 발견할 수 있다.¹⁸⁾

성왕은 말씀하셨다. “봉이여! 내 들으니 옛날 은나라의 어진 임금들께서는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잘 인도하여 빛나게 했을 뿐 아니라, 미덕을 실행하

17) 강신주, 『철학의 시대』, 사계절, 2011, pp.286-287.

18) 벤자민 슈워츠 지음, 나성 옮김, 『중국 고대 사상의 세계』, 살림, 1996, p.87.

였으며 지혜로웠다고 한다. 탕왕으로부터 제을에 이르기까지 왕업을 이룩하고 보좌하는 신하들을 정중히 대하였다. 일반 관리들은 매우 공손하고 겸손하여 감히 태만하지 못하고 안일을 추구하지 못하였으니, 하물며 때를 지어 술을 마시는 일이 어찌 있었겠는가? 이들은 임금을 도와 왕의 훌륭한 덕을 빛나게 하였으며 백성들을 다스려 법을 공정하게 이끌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주왕은 술 마시기를 즐겼으며 이로 인해 백성들은 그의 명을 아랑곳하지 않았으나, 그는 여전히 안일하여 백성들의 원망만 받았을 뿐 나쁜 습성을 버리지 않았다. 지나친 향락과 법에 어긋나는 행위와 잦은 주연 탓으로 그는 모든 위엄과 풍도를 잃었으며, 백성들은 비통해하며 상심하였다. 그는 지나치게 술에 빠져서 스스로 멈출 줄 모르고 안일함을 추구하였으며, 그의 마음은 악독하고 사나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¹⁹⁾

왜 은나라에는 이토록 ‘술취함’의 현상이 만연했던 것일까? 은대의 경제생활은 초중기에는 농업과 목축업을 공동으로 하면서 생활하였으나, 후기에 접어들면서 농업이 주업으로 발전하였다. 은허에서 출토되는 농기구 가운데 반달형으로 된 구멍 없는 돌낫과 돌도끼가 많은데, 이는 농산물의 수확용 연장이었다. 이로써 보면, 은대 후기의 농업생산성은 그 이전시대보다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²⁰⁾ 이에 따라 제사에 사용되던 술의 생산량도 급증했고, 귀족사회에서는 음주풍습이 널리 유행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쌀, 기장, 조, 밀 등의 생산력 증가로 양조기술이 발전하였지만, 이로 인한 경제 활성화가 촉진되기 보다는 특정계층의 향락을 위한 소비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紂王때에는 특정계층의 향락이 최고조에 치달아 경제적 피폐함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신정체제에 반기를 든 사건이 발생하였다.

태사가 말하였다. “왕자여. 하늘은 무서운 재앙을 내려 우리 은나라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모두 술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은

19) 『書經』, 「酒誥」

20) 윤내현, 「은문화의 경제적 기반에 대하여」, 『사학지』10, 1976.

나라의 백성들은 손에 잡히는 대로 천신과 지신에게 제사지낼 순색의 짐승을 통째로 도둑질해 가는데도, 나라에서는 이런 짓을 용납할 뿐 아니라, 신에게 제사를 드릴 음식을 훔쳐 먹어도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²¹⁾

당대 대사였던 기자는 ‘술취함’이 초래한 사회의 하극상을 통탄하고 있다. 경제적인 피폐함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감히 天神과 地神에게 제사지낼 신성한 짐승을 통째로 도둑질해가거나, 신에게 제사를 드릴 음식을 훔쳐 먹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신정정치 체제 하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하극상으로 신정정치에 대한 완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왕조의 통치자들 역시 ‘술취함’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백성들의 이런 행위를 단속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이에 백성들은 神을 빙자한 채 방종을 일삼는 왕을 심판할 새로운 존재를 기다렸다. 백성들의 의식 속에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그 기대감은 서백²²⁾에게로 향하였다.

천자시여! 하늘은 이미 우리 은나라의 명을 끊었으니, 현인들은 물론 거북점에서도 우리들의 장래가 길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선왕들이 우리를 돕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 왕께서 음탕하고 놀이에만 빠져든 나머지 스스로 나라의 운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은 우리들을 버렸고 우리들로 하여금 기근에 허덕이게 하고 전염병에 시달려 하루라도 즐거울 때가 없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백성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하늘은 어찌하여 왕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가? 하늘의 명이 내리지 아니하니 지금의 왕을 어떻게 하랴.’라고 말합니다.²³⁾

21) 『書經』, 「微子」

22) 서백은 주나라 문왕으로, 이름은 昌이다. 상왕은 문왕을 周侯西白으로 임명하였는데, 문왕의 재위기간은 50년이며, 상의 紂王과는 동시대의 인물이다. 그는 근면하고 검소하며, 백성에게 인정을 베풀어서 귀의하는 백성들이 날로 늘었고, 그 기세가 강성해지자 무도한 제후들을 정벌하였다.

23) 『書經』, 「西白戡黎」

이 글은 서백이 黎의 제후를 쳐서 이기자, 紂王의 신하인 조이가 은왕 조의 앞날을 걱정하여 유희에만 탐닉하는 紂王에게 간언한 내용이다. 이 기록에서 은 백성들의 의식구조에 변화양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백성들의 의식 속에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열망과 기대감이 표출되어 있다. 왜 하늘이 왕에게 벌을 내리지 않느냐는 이들의 반문 속에는 神意에 대한 회의감이 표출되어 있다. 또한 지도층의 의식 속에는 기근과 같은 각종 자연현상과 전염병의 현상을 왕조의 교체와 결부시켜 해석하는 의식구조가 표출되어 있다. 이점 역시 왕조 멸망과 교체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배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은대의 경제구조를 와해시킨 무조직역량은 통치자의 ‘술취함’의 걱정에서 비롯되었고, 이로 인하여 神意에 절대적이었던 은인들의 의식구조에 큰 변화가 포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의식구조의 변화양상[초안정시스템 작용]-殷 위정자들의 책임의식 배태

은대는 天命의 영원성이 보장되던 시대였다. 受命者였던 왕은 특권을 독점하여 누릴 수 있었고,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여부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천명을 받들 수 있었다. 그들은 일체 모든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은대에는 모든 통치권이 天의 영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통치자의 책임은 제사와 정문을 통한 천명 수행으로 한정되었을 뿐, 통치 결과에 대한 개인적 책임의식은 아직 배태되지 못한 사회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은왕조 말기에 이르러 왕의 통치 책임을 촉구하는 양상이 배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殷 三仁을 통해 그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공자는 『논어』에서 미자·비간·기자²⁴⁾ 세 사람을 殷仁人이라고 칭송하였다. 이들은 통치자의 책임의식 각성을 통하여 사회를 안정적인

적응상태로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은왕조 말기 紂王의 학정이 심해지자 사회 전반에 걸쳐 왕권의 절대성에 대한 회의가 일기 시작하였다. 神權을 명분으로 내세워 紂王의 폭정을 일삼았던 紂王에게 三仁은 통치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들은 紂王이 통치자로서의 책임적 역할을 각성하여 나라를 공고하게 세울 것을 간언하였다.²⁵⁾

미자가 말하였다. ‘태사와 소사시여. 은은 아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바로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술에 빠져 조상께서 이 세상에 이룩하신 덕을 어지럽히고 망쳐버렸습니다. … 이제 은나라는 도저히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길이 없으니, 이는 마치 큰 내를 건너려는데 나루터도 언덕도 없는 것과 같으니 끝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태사와 소사시여. 저는 이 은나라를 멀리 떠나버릴까요, 집안에서만 늙도록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황야에 묻혀 한 세상을 보내야 할까요.’ 태사 기자가 말하였다. ‘하늘이 은나라 백성을 내려다보니 나라에서는 가혹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백성들은 이 때문에 나라를 원수와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나라의 상하가 모두 죄를 저질러 하나가 되었으니, 선량한 백성들은 병마에 시달리고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디 한 곳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 상나라에는 큰 재난이 내릴 것이며, 우리 모두 그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 왕자께서 떠나시지 않으면 우리 상나라는 영영 망하게 되어 조상을 받드는 후손까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각자가 자중하여 자기 일을 도모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선왕들에게 공헌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²⁶⁾

이 기록은 미자가 기자와 비간과 함께 은나라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음을 통탄하는 내용이다. 또한 은 삼인의 입을 통하여 은의 국운이 다했음을 걱정하고 있다. 기자는 후에 紂王에게 간하다가 듣지 않자 미친 체하게 되었으며, 비간은 紂王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은왕조의 멸망을 걱정하는 이들의 간언은 紂王에게

24) 『논어』, 「미자1」, “微子 去之 箕子 爲之奴 比干 諫而死 孔子曰 殷有三仁焉.”
 25) 천영미, 「공자의 책임적 자아론의 형성과정」,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2008, pp.145-146.
 26) 『書經』, 「微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왕은 오히려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명을 타고났거든 그게 무슨 가당치 않은 소리냐고 반문하였다.²⁷⁾ 그는 나라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도 천명의 절대성만을 맹신하는 의식구조에 사로잡혀 있었다.

키틀리는 은대의 제사와 정문을 통한 신정체제의 사회구조 속에서 책임의식이 배태된 현상을 ‘신정적’입장에서 ‘세속적’입장으로의 변화라고 주장하였다.²⁸⁾ 즉 이전에는 점술에 의존했던 사회 제반 문제들이 이제는 왕의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고, 왕의 책임의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4. 대동란 초래와 주왕조의 건립

초안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용할 때에는 사회혼란과 충격에 대해서 비교적 강한 저항력을 발휘하여 안정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이 때의 왕조는 더욱 강성해지고, 혼란 방지 능력도 구비하게 된다. 그러나 무조직역량의 약성증가와 더불어 혼란이 증폭되는 경우 결국 대동란이 초래된다. 역사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사회의 기존 조직이 붕괴되고 대동란이 출현함은 그 사회가 혁명적 방식으로 기존 구조를 변모시키고, 새로운 구조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즉 대동란은 폭풍우가 몰아치듯 격렬한 방식으로 이미 부패한 관료조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치체제가

27) 『書經』, 「微子」

28) 또한 董作賓은 갑골문 전체에 대한 각고의 분석을 토대로 이러한 변화양상을 5단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점술에 대한 높은 의존을 강조했던 것이고, 둘째 단계는 자연신들과 신화적 왕조 이전 단계의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강조했던 것이다. 셋째는 조상들에 대한 제사의 실행에서 불규칙과 임시변통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단계이고, 넷째는 방대한 집단의 점술가들에게 의존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은 점술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자연신들과 먼 조상들에 대한 제사가 모습을 감추고, 왕이 주된 점술가로 탈바꿈하여 조상에 대한 제사가 매년 5번으로 규칙화되는 진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 (벤자민 슈워츠 지음, 나성 율김, 『중국 고대 사상의 세계』, 살림, 1996, p.62)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대동란을 통하여 백성들은 안정과 번영의 실현을 강하게 희구하게 된다. 이와 같이 대동란의 적극적 의의는 소멸이 불가능한 부패한 무조직역량에 타격을 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구체제를 파기시켜 새로운 왕조에 다시 안정과 번영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²⁹⁾

은왕조를 붕괴시킨 주왕조는 은나라가 저질렀던 수많은 잔혹한 정책들을 지양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적 행보를 과감히 단행하였다. 주왕조는 은말기에 이미 싹트기 시작한 천명의 영원성에 대한 ‘회의감’과 통치자의 ‘책임의식’ 양상을 포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통치방식을 기획하였다. 즉, 주왕조는 천명³⁰⁾의 절대성을 상대화시키고, 왕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치자의 ‘책임의식’을 선결조건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이제 주왕은 천명의 절대성을 보장받았던 은왕과 달리, 천명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고민하는 존재로 탈바꿈되었다. 이제 왕들은 특권적 지위로 말미암아 행위만 낳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이 면제될 수 없었다. 이들의 통치행위는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했고, 책임적 행위를 통해 사회안정과 화합, 결속을 창출해야 했다.³¹⁾ 주왕조의 천명의 상대화와 통치자의 책임의식을 결부시킨 새로운 통치기획은 전대미문의 혁신적인 조치였고, 고대 중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시켰다.

29) 김관도, 유청봉, 『중국 봉건사회의 장기 지속 원인에 대한 구조 분석』, 천지, 1994, pp.124-125.

30) 天은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한 조물주, 천지자연의 법칙을 운행하고 인간사를 감시하며 天罰을 내리는 불가항력의 존재, 천명을 내리는 절대적 신이었으며 동시에 周族의 조상신이었다.(郭沫若, 「天의 思想」, 『東洋思潮』, 東京, 岩波書店, 1935, pp.36-37) 命은 天意가 자연현상 또는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궁극적인 과정을 의미했다.(李愛熙, 「宋代의 天命觀에 관하여」, 『人文研究』 제19집, 1984, p.371)

31) 신정근, 「책임적 행위자 용어[自/己]의 기원」, 『철학논구』 27집, 1999, p.31.

IV. 西周-春秋時代의 사회변동과 의식구조의 변화양상

춘추시대의 사회변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방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혈연관계의 소원함이 종법제의 와해를 초래했고, 경제적, 군사적 능력을 구비한 제후들이 천자를 능가하는 힘을 지니게 됨으로써 사회혼란이 가속화되었다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즉 천자로부터 나오던 유일무이한 권력이 제후와 경대부에게로 이양되면서 사회혼란이 극심해졌다고 단정 지었다. 그러나 이것은 춘추시대의 사회변동을 시기별로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한데서 초래된 성급한 결론이다. 춘추 초기와 중기의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 무조직역량은 전혀 다르다. 즉 춘추 초기의 정치구조를 와해시킨 무조직역량은 변방에 위치한 신흥강국의 출현이었고, 춘추 중기 이후의 정치구조를 와해시킨 무조직역량은 ‘銅’확보를 위한 제후국들의 세력다툼에서 비롯되었다.

1. 춘추 초기 사회변동과 의식구조의 변화

1) 정치구조의 무조직역량

천명의 상대화와 통치자의 책임의식을 기치로 내건 주왕조의 통치는 BC9세기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중원의 변두리에서 楚, 秦, 吳, 越과 같은 신흥강국들이 등장하여 천자의 권위에 도전하였기 때문이다. 한 예로 청동기 명문에 의하면, 주나라 昭王(재위:BC996-BC972)때에 楚國이 불복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서주 초기에도 주왕실이 초국을 정벌한 일이 있었는데, 소왕 때에 초국의 세력이 강성해져서 다시 반항하게 되었던 것이다. 소왕은 재위 16년과 19년 두 차례에 걸친 초국 정벌에서 1차는 승리를 거두었으나, 2차 정벌에서 참패하여 한수에서 사망하였다. 소왕의 사후 주왕실은 남방을 제어할 능력을 잃게 되었고, 초국은 江漢

지역에서 세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BC880년에 초국이 또다시 천자의 호칭을 참칭하는 일도 있었다.

2) 초안정시스템[의식구조의 변화] - ‘霸’제도[패자의 책임의식]

신흥강국들의 등장으로 견고했던 주왕조의 통치 질서가 와해되면서 혼란이 초래되자, 강족[齊]은 혼란을 수습하고 나라를 안정시킬 책임이 자신들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확신하였다. 강족은 은왕조 당시 은왕조를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들었던 부족이었다. 이들은 뛰어난 전투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어 은왕조를 붕괴시킨 주된 세력이었으나, 주나라 창건 후 주왕조는 정치적인 견제를 목적으로 이들을 산둥성 동쪽으로 축출하였다. 강족은 자국의 지리적, 경제적 이점을 이용하여 세력을 구축하였고, 독립국으로서의 위상을 빠른 시간 내에 확립할 수 있었다.

齊國은 서주시대에 질퍽한 갯벌에 인구도 적어서 농업이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춘추시대에 이르러 뽕나무³²⁾와 삼을 심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변모되어 다른 제후국의 경제력을 능가할 수 있었고, 바닷가 근처에 위치하여 제염업이 발달하였다.

춘추 초기의 무조직역량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강족이 제시한 정치제도는 ‘霸’였다. 제환공은 주왕조의 공식적 재가를 통해 중원에서 초래된 모종의 불안요인을 성공적으로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제환공과 관중은 사회를 안정시킬 초안정시스템으로 패자의 책임의식을 내세웠다. 그리하여 BC7세기에 이른바 ‘霸’라는 제도가 출현하였다. 제환공과 그의 재상 관중의 영도 아래 산둥반도에 자리잡은 제나라는 주왕의 재

32) 『맹자』, 「양혜왕상7」에는 제선왕이 맹자에게 천하에 왕노릇하는 방법을 물었을 때, 맹자는 한 가지 대책으로 백성의 생업을 제정해주되, 반드시 위로는 충분히 부모를 섬길 수 있고, 아래로는 죽히 처자를 기를 수 있어 풍년에는 배 부르고 흉년에는 사망을 면케 해 주어야 한다고 대답한 내용이 있다. 맹자는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5畝의 집주변에 뽕나무를 심게 한다면 50세 된 사람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로써 보면 제나라에는 뽕나무를 심기에 적합한 토질을 이미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기간(BC649-BC639) 동안 자신의 직권으로 재가한 일종의 연명제도를 성립시켰다. 이것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중원의 세계에 전반적인 평화를 유지하려는 일종의 집단안보체제이다.³³⁾ 이는 정치적 통합을 구축하기 위한 책임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혈연관계로만 묶여있던 각 제후국을 동맹³⁴⁾과 협약과 같은 더욱 강력한 정치체제 아래 규합하고자 했던 제도이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는 “자연상태, 이른바 무정부상태를 끝내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시켜주던 리바이어던-패권국 또는 최고통치자-이 없다면 불신과 분쟁, 전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³⁵⁾라고 하여 국제정치에 있어서 패권국의 등장을 필수불가결한 현상으로 보았는데, 춘추시대 패자의 등장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환공에 의해 수립된 ‘覇’는 그 성과를 발휘하였다. 제나라가 패권을 장악했을 당시, 춘추시대의 혼란은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공자조

33) 벤자민 슈워츠 지음, 나성 옮김, 『중국 고대 사상의 세계』, 살림, 1996, pp.90-91.

34) 동맹의 형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힘이 약한 쪽과 동맹을 맺어 균형을 이루는 균형(balance)이고, 다른 하나는 힘이 강한 쪽과 동맹을 맺는 편승(bandwagoning)이다. 힘이 약한 쪽과 동맹을 맺는 경우는 강력한 지배국가의 등장을 견제하기 위함이고, 편승전략은 힘이 강하거나 위협적인 세력의 편에서 서는 것이다. 이 경우는 힘이 강한 쪽에 섬으로써 자국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함이다. 스티븐 윌트는 그의 저서 『동맹의 기원』에서 국가들이 반드시 힘이 라는 기준에 의해 동맹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이라는 기준에 의해 동맹행위를 한다는 위협균형론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객관적으로 힘은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가 자국에 더 위협적이라면 그 나라와 동맹을 맺기 보다는 상대방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는 것이다. 한 예로, 1-2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던 연합국 편에 선 것은 독일이 힘은 약하지만 더 위협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패권국들의 정국운영방식은 현실주의자들과 흡사하다. 현실주의자들은 국제관계를 힘(power)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들에 따르면,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이고, 국가들은 국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다. 현실주의자들은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더 강한 힘’이라고 규정한다.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3, pp.20-25)

35) 비오티 카우피, 『국제관계이론』, 일신사, 1996, pp.63-65.

차도 대동란이 초래되지 않고 주왕조의 미약한 왕권을 보존하면서, 당대의 혼란을 수습했던 제환공과 관중의 공을 높이 인정하였다. 공자는 관중이 이룩한 업적과 ‘霸’제도의 기반이 되는 정신에 주목하였다. 관중과 제환공에 의해 기획된 霸제도는 齊나라의 강성함을 이용하여 제후국을 호령하고 정벌전쟁을 일삼은 것이 아니라, 평화적 공존질서를 통해 제후국의 ‘통합’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평화적인 공존질서를 중시했던 관중의 의도는 『管子』³⁶⁾의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영토가 크고 부강하며, 백성이 많고 병력이 강한 것, 이것은 패업과 왕업을 이루는 근본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危亡에 가까워지기도 한다. 무릇 영토가 비록 크더라도 그 힘으로 겸병하지 아니하고, 약탈하지 아니하며, 백성의 수가 많더라도 이를 믿고 나태하지 아니하며, 오만해하지 아니하고, 나라가 비록 부강하더라도 제후를 경멸하지 아니하고, 대중을 동원하여 用兵함에는 반드시 천하의 정치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어야 하니, 이것이 천하를 바르게 하는 근본이고, 패업과 왕업의 바탕이다.³⁷⁾

36) 『管子』는 諸家が 총망라되어 있어 후대 諸家の 분류에 의거한 某家の 書로 단언하기 어렵다. 『관자』 86편에 대해 『한서』, 『예문지』는 道家의 書로 분류하였고, 유홍의 『칠략』에는 법가로 분류하였다. 더욱이 清末民初에 일어났던 疑古風에 의해서 『관자』는 관중의 저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고형이 내려지기까지 하였다. 『관자』의 진위문제에 관한 이러한 견해는 예부터 있었다. 宋 蘇轍은 “전국시대에 이르러 諸子들의 저술은 『관자』의 설에 기인해서 보태어졌다. 때문에 그의 廢情任法과 같은 仁義와 위배되는 부분은 모두 신불해와 한비자의 말이지 관중의 진면목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葉適은 “『관자』는 한 사람의 필치이거나 한 시대의 저작이 아니므로 누구의 저술인지 알 수 없다. 책 속에 西旋, 吳王好劍 등의 고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춘추말기의 저작이 아닌가 한다.”고 하였다. 청대로부터 근대까지 이루어진 문헌비판에서도 후대 諸家が 戰國에서 秦漢에 걸쳐 自家의 설을 관중에 의탁하여 덧붙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꼭말약은 『관자』는 관중이나 어느 일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국시기와 그 후의 여러 저작들을 총집합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李居洋은 『관자』가 비록 一人, 一時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잠동사니는 아니며, 그 가운데는 관중의 유서와 유설이 들어있고, 관중 사상의 기타 사료도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는 『관자』가운데 經言 9편은 관중의 手撰이며, 內言 9편은 관중의 언행과 일사를 기록한 것으로 믿고 의거할 수 있는 자료임을 밝혀냈다.(李居洋, 「對考證管子의 一點看法」, 『管子研究』 제1집, 山東人民出版社, 1987, p.40)

37) 『管子』, 「外言 重命15」

관중은 영토가 크고 부강한 것은 패업과 왕업을 이루는 근본이지만, 그 힘이 규제되지 않고 사용되면 국가가 危亡에 직면하게 됨을 지적하였다. 그는 大國의 힘 사용에 있어서 규제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즉 영토가 크더라도 그 힘으로 겸병하거나 약탈을 일삼지 않고, 나라가 부강하더라도 제후를 경멸하여 함부로 정벌하지 않아야 하며, 군사를 동원할 때에는 천하의 정치를 다스리기 위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중은 만일 大國이 그 힘과 부강함만을 믿고 제후국을 정벌하고 약탈하게 되면 그로써 멸망이 초래되지만, 大國이 그 힘을 천하 정치를 바르게 하는데 사용할 때에 비로소 통합이 이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제환공이 평화적인 공존질서를 중시한 관중의 정책을 받아들였을 때, 제후국들은 모두 제나라에 귀복하였고, 제환공은 霸業을 달성한 霸者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관중에게 있어서 霸業은 세력을 이용하여 정권을 전횡하고 제후국을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천자의 政令³⁸⁾을 잡고 동맹을 주도함으로써 공존질서 위에 통합을 이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霸’는 춘추시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제환공과 관중에 의해 기획된 초안정시스템으로,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책임의식의 발로로 기획된 정치제도이며, 평화적인 공존질서를 재확립시킨 공효가 매우 크다.

2. 춘추 중기 사회변동과 의식구조의 변화

1) 정치구조의 무조직역량-‘銅’확보를 위한 제후국들 간의 세력다툼

춘추 초기에 주왕조의 세력이 미미해졌을 때, 제나라는 ‘霸’를 제시함으로써 대동란으로 초래될 왕조 붕괴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치질서를 재확립하였다. 그러나 제환공 死後 펼쳐지는 ‘霸’제도에는 이전과 전혀

38) 천자의 政令을 잡고 동맹을 주도하는 ‘方伯’으로서의 ‘霸’의 의미는 맹자에 이르러 무력으로 대체되어 왕도정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민후기, 「중국 고대 ‘聖’‘勢’론의 변화와 전제군주론의 형성」, 『동방학지』, 2007, p157)

다른 양상이 포착된다. 이후의 패권은 ‘銅’확보를 위한 제후국들의 세력 다툼에서 승리한 나라가 차지하는 양상을 보이며, 패자가 되기 위한 제후국들의 무분별한 전쟁과 살육이 자행되었다. 이는 춘추 중기의 정치구조를 와해시키는 무조직역량으로 작용하였다.

흔히 일컬어지는 春秋五霸에 관한 선진 문헌 가운데는 제환공, 진문공, 진목공, 초장왕, 송양공을 꼽지만, 『漢書』 「諸侯王表」에서는 제환공, 진문공, 초장왕, 오부차, 월구천을 꼽는다. 본고에서는 춘추 중기의 사회혼란이 ‘銅’확보를 위한 제후국들의 세력다툼에서 초래되었음을 규명하기 위해 춘추오패에 대한 『漢書』의 분류를 따르고자 한다. 이는 楚國, 吳國, 越國이 ‘銅’확보를 위해 서로를 견제했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殷周이래 중원 국가들은 중원문명을 뒷받침하는데 필수적이었던 銅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남방으로 진출하였다. 은왕조와 같이 남방지역에 직접적인 진출이 가능하지 않았던 주왕조는 남방의 銅鑛과 중원지역을 잇는 淮水 지역에 거주하였던 淮夷를 통해 銅을 보급 받았다. 주왕조는 활발하게 회수지역 진출을 피하면서 淮夷를 정벌하였다. <金文>에 주왕조의 회이 침입과 정벌에 관련된 기록이 많은 것은 이들을 주왕조의 조공체제 안에 두면서 자원을 획득하려는 의도였으며, 제사와 전쟁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던 동 확보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³⁹⁾

서주 이래 중원국가들에게 남방 청동원료의 공급로인 淮水 지역은 춘추 중기 이후 대부분 楚國에 의해 장악되었다. BC584년 중원의 패권국이었던 晉國은 楚國을 견제하기 위해 吳國⁴⁰⁾과 연합하였다. 오국은 초국의 속국들을 복속시킴으로써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고, 吳國과 晉國의 연합작전은 적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렇다면 晉國은 왜 吳國

39) 이성규, 『중국문명의 기원과 형성』, 「선사문화에서 상주문명으로」,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소 편, 지식산업사, 1989, p.72.

40) 吳國은 동남방의 소국이며, 주왕실과 동성인 姬姓 제후이다. 오왕들은 주왕실의 후예로서 중원의 중법적 질서에 합류하고자 하였으나, 오국은 서주 초 책봉된 이래 춘추 말에 이르기까지 주왕실을 비롯한 중원 국가들과 단절된 가운데 발전하였다.

과의 연합정책을 추진하였을까? 晉國은 吳國이 이룩한 군사적, 외교적 능력에 주목하였다. 물론 吳國이 춘추 중기 이후 중원 패권국들의 정국 운영에 등장하게 된 것은 銅 원료를 쉽게 획득할 수 있었던 지리적 여건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吳國이 남방의 강국 楚國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초국의 쟁탈대상이었던 徐國, 蔡國, 陳國 등 淮水 지역의 주변 국가들과의 연합정책을 성립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徐國은 초국이 강대해지기 전까지 남방에서 가장 강성했던 나라로, 비록 小國이나 초국의 군대를 공격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淮水 지역의 소국들을 통어하는 수령의 역할을 하였던 나라이다.⁴¹⁾

역사를 통하여 볼 때, 변화의 주된 메커니즘은 바로 전쟁이었다. 전쟁에 의해서 어느 국가가 체제를 지배하는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체제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전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고대 중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력을 구축한 제후들은 패자가 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빈번했고, 권력을 차지한 패권국은 여러 제후국을 규합하여 불복하는 제후국에 대해서는 대결구도를 펼침으로써 종주국이 되고자 하였다. Creel에 따르면 서주시대(BC1122-BC779)의 문헌들에서는 55차례의 전쟁이 발발하였다.⁴²⁾ 이 가운데 42건 만이 적의 신분이 확인되고 있는데, 주요정벌 대상은 변경에 위치한 夷狄들이었다. 그들은 서주 왕권의 위협적인 대상이었기 때문에 축출되어야 하는 존재였다. 바로 이 점은 전쟁 발발의 시기가 서주 왕조의 초창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사실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전쟁의 목적이 왕권의 공고화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춘추시대에 이르러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다. 전쟁의 발생횟수만 보더라도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춘

41) 천영미, 「선진시대 정국운영 양상에 관한 고찰」, 『한문고전연구』 15집, pp.292-293.

42) Herrlee Glessner Creel, 『The Original of Statecraft China』,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pp.260-262.

추시대 제후국들은 연평균 2회 이상, 5개국 정도가 전쟁을 수행하였다.⁴³⁾ 또한 허탁운의 연구에 의하면, 전쟁이 BC662-BC553년 간에 빈발하였는데, 그 시기는 전쟁을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이 있다고 하였다. 즉 주 천자를 대신한 패자의 등장인 전쟁 유발 요인을 증가시킨 것이다.

에드워드 하렛 카(E.H.Carr)는 『위기의 20년』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전쟁은 그 동기가 아무리 안전보장에서 시작되었더라도 곧 침략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의 전쟁이 된다.”⁴⁴⁾고 하였는데, 이는 ‘銅’ 확보와 이를 통한 세력구축으로 패자가 되고자 일으켰던 제후들의 전쟁의 특징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춘추 중기는 ‘銅’ 확보를 위한 제후국들의 세력 다툼 속에서 ‘패’를 명분으로 내세운 大國이 小國을 정벌하여 병합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건 약탈 전쟁일 뿐이었다.

2) 경제구조의 무조직 역량 : 초세무

기존의 연구는 씨족제적 읍공동체의 해체와 사회분열의 요인을 열국 간의 攻伐에서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읍공동체의 해체계기는 경제적 요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初稅敵이다. 초세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춘추시기 읍 공동체의 특징을 살펴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은대부터 춘추시기까지의 중국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는 邑이었다. 간단한 방어시설만을 갖춘 소규모 취락에서부터 향토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형태의 발달된 대취락이나, 심지어 王都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集住하는 곳은 모두가 읍이었다. 읍은 발달정도에 따라 규모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지만, 그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자연취락이었다. 읍은 지리적 조건에 의해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낮은 생

43) 朱寶慶, 『左氏兵法』, 협서인민출판사, 1991, p.5.

44) 비오티 카우피, 『국제관계이론』, 일신사, 1996, pp.63-65.

산력 수준에서 혈연적 유대를 바탕으로 하여 소규모 자연관계 농경을 영위하던 씨족제 촌락공동체였다.⁴⁵⁾

춘추시대 당시 열국의 외면적인 전체구조를 조감해보면, 거기에서 확연히 부각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國과 野의 엄격한 구분이다. 우선 國은 본래 서주 초 정복한 동방 각 지역의 중심적 舊邑의 자리에 주왕실로부터 파견된 제후 및 그 일족이 새롭게 성벽을 축조하여 건설한 新邑이다. 그리고 國을 둘러싼 성곽들을 대체적인 경계로 하여 그 밖에 펼쳐지는 광대한 原野가 바로 鄙이다. 원야에는 國의 축소형태인 鄙가 제후 일족의 分邑으로서 존재하면서 주변의 소취락인 鄙를 속읍으로 영유하고 있었다.⁴⁶⁾

鄙邑에 대한 國의 귀족이 취한 지배방식은 읍내의 기존 공동체 질서를 거의 그대로 온존시킨 채 읍 단위로 파악하는 이른바 총체적 지배였다. 말하자면 그것은 읍 단위로 할당된 일정량의 공납과 力役을 주로 공동체의 수장을 매개로 착취하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그들이 단지 영유권이나 수취권만을 행사하는 정도의 느슨한 지배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의 낮은 생산수준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열악한 농기구에 의한 생산수준은 보잘 것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지배층은 비읍민의 集體 노동방식에 의한 公田 경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공전경영은 노동조직의 편성, 공동경작의 지도감독, 수확물의 보관 등 전 과정에 걸쳐 공동체 수장의 전통적 지배에 의존하여 이루어졌고, 귀족은 단지 자기 휘하의 邑宰를 파견하여 수확물만 징수해갔을 뿐이다.⁴⁷⁾ 한 예로 공자의 제자 冉有는 季氏의 邑宰였다. 계씨가 주공보다 부유했는데도 염유가 읍제로서의 수완을 발휘하여 세금을 더 걷어 계씨의 재산을 늘려준 기록이 『논어』에 남아있다.⁴⁸⁾

45)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편, 『강좌중국사』, 지식산업사, 2007, pp.92-93.

46)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편, 『강좌중국사』, 지식산업사, 2007, pp.95-96.

47)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편, 『강좌중국사』, 지식산업사, 2007, p.104.

48) 『論語』, 「先進16」, “季氏富於周公 而求也爲之聚斂而富益之.”

그러나 지배층의 가혹한 수탈에 따른 읍민의 집단적 逃散으로 인해 읍 공동체는 점차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종래의 공납 노동에 의한 강제적 공전 경작은 철저한 감독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가혹한 수탈을 견디지 못한 읍민들의 도산으로 인해 원활한 유지가 어려워졌고, 수확량도 저하되었다. 지배층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효율적인 착취를 꾀하기 위해 初稅畝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초세무는 藉의 폐지이다. 藉는 바로 노역에 의한 공동경작이고, 稅畝는 경지면적에 따른 과세이다. 즉 초세무는 公田에서의 집단경영방식에서 私田에 대한 按畝取穀으로, 노역지대에서 실물조세로의 전환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초세무 전제 개혁에서 알 수 있듯이, 按畝取穀 방식은 귀족들의 세력 확대를 위한 효율적 세수 증대를 목표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점유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불안은 가중되었다.⁴⁹⁾

3) 초안정시스템[의식구조의 변화]-책임의식의 확대

춘추 중기는 銅 확보를 위한 제후국들의 세력다툼 속에서 覇를 명분으로 내세운 大國이 小國을 정벌하는 약탈전쟁이 빈번하였다. 또한 귀족들의 세력 확대를 위해 추진된 초세무 정책은 백성의 삶을 중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었다.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된 사회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당대의 지식인들은 약탈전쟁으로 점철된 정치적 통합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사회 전체 구조에 고도의 안정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초안정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즉 공자는 각 개인의 책임의식을, 묵자는 공동선/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턴의 책임의식을 제시하였다.

49)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소 편, 『강좌중국사』, 지식산업사, 2007, pp.116-117.

(1) 공자의 각 개인의 사회적 책임

춘추시대는 이윤의 극대화, 기득권 상실에 대한 공포, 특권 유지를 위해 따르는 횡포를 되풀이하는 “무제한의 이윤 추구”로 점철되었던 시대이다. 공자가 가장 문제시 했던 당대의 문제는 바로 위정자들의 무제한적 이윤추구였다. 이들은 대외적으로는 銅 확보를 위한 약탈전쟁을 일삼았고, 대내적으로는 정국을 운영하는 힘이 천자로부터 제후, 제후로부터 대부에게 넘어가면서 권력을 쟁탈하려는 전쟁이 난무했다. 허수아비 왕 뒤에서 검은 속내를 숨기며 권력을 행사하는 귀족들은 자기 잇속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⁵⁰⁾ 또한 정권을 거머쥔 통치자는 한심한 인사들로 나라의 중책을 메우고 있었고,⁵¹⁾ 백성을 돌봐야 할 중역들은 남의 자리를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에만 급급할 뿐, 엉뚱한 데 마음이 팔려 민생을 외면하던 시대였다.⁵²⁾ 또한 경제적으로는 자신들의 세력 확대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세수 개혁-초세무정책-을 감행하였다. 귀족들의 이윤추구로 피폐해진 백성의 삶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논어』의 구절들은 술하게 많이 있다.

남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를 연구하고, 현장에서 활동가로서 일하는 장지글러가 그의 저서에서 그려낸 사회구조적 문제로 초래된 궁핍한 시민들의 삶의 모습은 춘추시대 사회구조적 문제로 초래된 하극상과 놀랍게도 닮아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들이 구조적 부조리에서 제일 먼저 당하게 되는 사회적 사건을 기아라고 한다. 이런 구조적 병폐는 국가 내부의 이유로 발생하기도 하고, 국제적 관계 혹은 권력관계에 의해서 재생산되기도 한다. 이렇게 하나의 구조 악이 발생할 때마다 그 이유와 경로는 다양하지만, 굶어죽은 이들의 무덤은

50) 『論語』, 「顔淵18」, “季康子患盜 問於孔子 孔子對曰 苟子之不欲 雖賞之 不竊.”

51) 『論語』, 「先進23」, “季子然 問 仲由冉求 可謂大臣與...今由與求也 可謂具臣矣.”

52) 『論語』, 「公治長17」, “子曰 藏文仲 居蔡 山節藻梲 何如其知也.”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가해진 구조적 폭력을 상징한다. 구조적 기아는 외부적인 재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구조로 인해 빚어지는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유일한 생명체인 인간의식의 변화에 희망이 있다.⁵³⁾

그렇다면 누가 과연 정의를 논할 것인가? 무엇이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 당대의 통치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외면한 채, 리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들의 눈에는 현실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창조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자는 사회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들을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자로, 책임의식을 가진 주체로 변화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공자는 초안정시스템으로 각 개인의 책임의식을 내세웠다. 즉 통치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책임의식을 각 개인에게 확대시키는 시도를 감행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각 ‘개인’은 공동체성을 담지한 자각적 개인이다. 이들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공동의 삶을 조정하고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며, 사회 변혁의 순간에 사회적 정당성을 외칠 수 있는 존재들이다.⁵⁴⁾ 각 개인은 단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분열된 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을 이루는 가운데 사회 정의실현을 위한 공동체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공자는 모두가 받아들이기 꺼려했던 호향의 소년에게서도 ‘변화’를 시도해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공자는 각 개인이 책임의식을 발휘함으로써 실현될 사회적 결속과 화합을 仁으로 규정하였다. 仁이 실현된 사회는 인간의 가치를 초월하는 진리는 없다⁵⁵⁾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다. 또한 각 개인이 자신

53) 장지글러 지음, 유영미 옮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갈라파고스, 2007, p.16.

54) 찰스테일러, 김선욱 외 역, 『세속화와 현대문명』, 「근대성과 세속적 시간」, 철학과 현실사, 2003.

의 고유한 본성과 성격, 치우친 신념, 불완전한 원칙 고수 등의 한계점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규범[禮]⁵⁶⁾을 존중하는 사회이다.

공자는 모든 통치의 메커니즘은 한 가지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한 가지 대전제는 바로 사회적 화합과 결속[仁]의 실현이다. 그는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사회구조와 규범이 마련되어야 하되, 이것은 오로지 공동체성을 담지한 자각적 개인들의 책임의식과, 정의에 대한 불굴의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논어』에서 공자가 사회적 결속과 화합[仁]의 실현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불굴의 의지를 강조했던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2) 목자의 공동선/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통치자의 책임

중국의 고대 사상가 가운데 목자는 전기가 분명하지 않은 인물이다. 사마천의 『사기』에도 「孟子荀卿傳」의 일부에 “묵적은 송나라 대부로서 성을 방위하는 기술에 뛰어났고, 절용을 주장하였다. 공자와 같은 시대라 하기도 하고, 혹은 공자보다 후세 사람이라고 하기도 한다.”⁵⁷⁾라고 짧게 기록되어 있을 뿐이며, 생존의 시기조차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자는 ‘패’제도에 의해 명목상으로라도 유지되었던 주왕실의 권위가 사라지고, 중원 국가들 간에 생존과 지배를 위한 전대미문의 투쟁이 지속되었던 대변화의 초기에 살고 있었다.

공자 사후의 3세기는 목가 사상의 출현과 영향으로 중국역사에서 중요한 과도기적 특징을 갖는다. 당시 공자가 개탄했던 퇴폐적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목자는 공자 사후 그 제자들의 한계를 직시하였다. 그는 세상을 파멸시키는 유자들의 세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첫째, 유자들은居喪의식에 지나친 낭비와 힘을 쏟는다. 둘째, 그들

55) 『論語』, 「鄉黨12」, “廋焚 子退朝曰 傷人乎 不問馬.”

56) 『論語』, 「顏淵1」, “顏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57) “蓋墨翟 宋之大夫 善守禦 爲節用 或曰竝孔子時 或曰在其後.”

은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가무에 탐닉한다. 셋째, 그들은 貧富, 壽夭, 질서와 무질서, 안전과 위험을 결정하는 것이 운명이라고 믿는다.⁵⁸⁾ 목자의 눈에 비친 유가들은 禮樂의 지나친 강조와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의 수동성에 젖어 더 이상 공자의 사회적 화합과 결속을 계승할 만한 의지나 능력을 이미 상실한 듯 보였다. 이에 목자는 당대의 혼란을 종식시켜 안정상태로 회복시킬 초안정시스템으로 ‘공동선/공공복리의 실현’을 내세웠다.

목자는 당시 만연한 전쟁과 사회혼란의 원인을 인간의 이기적 속성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는 자기 이익의 추구에만 전념하는 자연상태의 인간을 상정하였다.

옛날에 인간들이 처음으로 생겨나 아직 정부의 형태를 갖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의 올바름이 있고, 두 사람이 있으면 두 개의 올바름이 있고, 열 사람이 있으면 열 개의 올바름이 있었다.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이른바 그 올바름도 따라서 많아졌다. 이로써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남들의 올바름을 비난했다. 따라서 사람들의 교제에서 서로 비난하는 일이 생겼다. 안으로는 부자와 형제가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여 뿔뿔이 흩어지니 서로 화합할 수 없었다. 천하의 백성들은 물과 불, 독과 약의 적대적인 사이처럼 서로 해를 입혔다. 힘이 남아돌아도 서로 도와주지 않고, 재물이 남아돌아 썩어도 서로 나누어 갖지를 못했다. 좋은 도를 감추어 두고 서로 가르치지 않았다. 천하의 무질서가 마치 금수의 세계와 같았다. 이때 천하의 어지러움의 원인이 통치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천하의 가장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 천자로 삼았다. 천자가 세워졌으나 그 힘이 부족한 까닭에 다시 천하의 가장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들로 세 명의 재상을 삼았다.⁵⁹⁾

목자는 당대 사회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인간의 이기적 속성인 ‘利’에 대해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을 시도하였다. 즉 지배층 중심의 利에

58) 벤자민슈워츠 지음, 나성 옮김, 『중국 고대 사상의 세계』, 2004, p.215.

59) 『목자』, 「尙同上」

서 공공복리[天下之利]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당대 위정자들이 생각하는 利는 겸병과 약탈전쟁을 통해서 실현될 부국강병과 그 결과로부터 얻게 될 그들의 기득권, 즉 부와 권력이었다. 그러나 묵자는 천하 사람 모두를 이롭게 하는 공리를 義라고 정의⁶⁰⁾하였고, 패자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자국의 이익과 안정은 전쟁을 불사한 통합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보편이익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묵자의 사상 전체에 걸쳐서 그가 파격적으로 바라보고 증시한 것은 ‘利’였다. 이에 그는 ‘利’를 인간 사회의 모든 정치와 경제의 선악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고, 정치, 경제, 사회 제반문제를 ‘利’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였다.

옛날의 현명한 왕이나 성인이 천하를 다스리고 제후를 바로잡은 방법은 그들 백성을 사랑하여 삼가 충성되게 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여 삼가 독실하게 함으로써 충성과 믿음을 서로 연결시키고 또 그들에게 이익을 보여주는데 있었다. 모든 비용만 많이 들고 백성의 이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은 성왕은 하지 않았다.⁶¹⁾

어진 사람이 하는 일은 반드시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를 없애기에 힘쓰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천하의 법도를 삼아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면 행하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만두는 것이다. 또한 어진 사람이 천하를 위하여 해야 할 적에는 그의 눈에 아름다운 것이나, 귀에 즐거운 것이나, 입에 단 것이나, 몸에 편안한 것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서 백성들이 입고 먹을 재물을 축내고 빼앗게 되기 때문에 어진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다. 비록 몸은 그 편안함을 알고, 입은 그 단 것을 알고, 눈은 그 아름다운 것을 알고, 귀는 그 즐거운 것을 알지만, 그러나 위를 생각할 때 성왕의 일에 부합되지 않고, 아래를 해야 할 때 만백성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⁶²⁾

60) 『묵경』에는 “義는 바로 利이다.”라는 義에 대한 정확하고 엄정한 개념정의가 나타나 있다.

61) 『묵자』, 「節用下」, “古者明王聖人 所以王天下 正諸侯者 彼其愛民謹忠 利民謹厚 諸加費不加于民利者 聖王弗爲.”

목자가 말한 겸애는 공자의 살신성인 같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이것은 자신을 포함한 만인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⁶³⁾ 목자가 전쟁을 반대한 이유도 공공복리[天下之利]의 시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목자는 공약을 위한 전쟁⁶⁴⁾이 왜 불의한 것인지 강조하였고, 동시에 그것이 자국과 자국의 백성에게 왜 유해무익한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 시험 삼아 군대의 출정을 계산해보면, 화살, 깃발, 장막과 갑옷, 작은 방패, 큰 방패, 칼집을 갖고 나가 부서지고 썩어서 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것이 얼마나 많을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 또 세모창, 갈래진창, 긴 창, 칼, 수레 등도 가지고 나가 부서지고 망가져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 얼마나 많을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또 말과 소도 살찌서 나갔다가 말라서 돌아오거나 죽어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 얼마나 많을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또한 길이 멀어 양식이 공급되지 않아 백성 가운데 죽는 자가 얼마나 많을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또 거처가 불안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때에 맞지 않고 굶주림과 배부름이 조절되지 않아 백성 가운데 길에서 병이 나 죽는 자가 얼마나 많을지 헤아릴 수가 없다...백성의 이익을 망치는 것이 이와 같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는가. 이는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명예와 전쟁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탐내기 때문이다.⁶⁵⁾

62) 『목자』, 「非樂上」

63) 藏原惟人 지음, 김교빈 외 옮김, 『중국고대철학의 세계』, 도서출판 죽산, 1991, p.98.

64) 그러나 목자가 모든 전쟁을 반대한 것은 아니다. 그는 전쟁을 攻과 誅로 구분하였다. 攻은 타국에 대한 침략과 약탈을 위한 전쟁으로 타국과 자국의 백성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誅는 타국이나 자국 통치자의 학정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다.(목자는 「非攻下」편에서 湯이 桀을 伐하고 武가 紂를 討한 것이 바로 誅라고 하였다.) 타국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도 이 가운데 포함된다. 이것은 『목자』 「備城門」에 방어를 위한 정비나 전술, 기술에 대해 나타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타국을 공략함으로써 자국을 부유하게 하고자 혈안이 되어있던 당시 제후들의 정책과 달리, 목자는 평화의 기치 아래 전쟁에 반대하고, 정의로운 전쟁과 의롭지 못한 전쟁, 침략적 전쟁과 방어적 전쟁을 구별하였던 점은 주목할 만 하다.(藏原惟人 지음, 김교빈 외 옮김, 『중국고대철학의 세계』, 도서출판 죽산, 1991, p.85.)

이와 같이 묵자는 침략전쟁을 통한 부국강병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복리를 증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치론을 주장하였다. 묵자가 초안정시스템으로 제시한 공공복리실현 정책은 그동안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종류의 경제적 책임의식의 발로였던 점에서 주목할 만 한 가치가 있다. 전쟁을 폐하고 공정한 분배를 실현함으로써 백성의 이익을 증강시키고자 했던 획기적인 통치론은 묵자의 사상 속에서 최초로 그 꽃을 피워냈다.

V. 전국시대의 사회변동과 의식구조의 변화

1. 정치구조의 무조직역량- 영토국가로의 진입

춘추 중기를 전후하여 秦, 晉, 楚 등 주변 강대국은 종래의 회맹적 지배방식에서 탈피하여 소국을 멸한 후, 이를 縣으로 삼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멸국치현의 새로운 지배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의 변화는 국력의 강화와 군비의 충실을 위한 강력한 국내체제의 구축을 시급하게 필요로 하였다. 더 이상 기존의 권위으로써는 자신의 지위를 지탱하기 어려웠던 公은 이같은 시대적 요청에 힘입어 씨족공동체의 대표자에서 가부장적 군주로의 변화를 시도하였고, 당대에 당면한 여러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변법을 통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전국시대 7대강국은 BC400년을 전후로 100여 년 간에 걸쳐 경쟁적으로 변법을 단행함으로써 국내체제를 정비해나갔다. 각국의 군주가 직면한 국내외적 위기와 모순을 해결해 줄 수 있었던 변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폐쇄적 공동체적 질서는 물론 혈연적 유대와 대가족제를 파괴하고, 관료제에 의한 군현제적 지배의 전제 하에서 십오제와 연좌제를 바탕으로 齊民을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 국가질서

65) 『묵자』, 「非攻中」

를 확립하고자 한 것이 주된 골자이다. 이제 늘상 전쟁을 기획하는 군주 치하에서 백성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되어, 군주의 전쟁에 무조건적으로 동원되어야 할 존재가 되었다.

2. 경제구조의 무조직역량 - 군주권에 의한 산림수택의 家産化

기존의 연구들은 전국시대 국가형태의 발전 및 군주권 확립 계기의 주요 요인을 전쟁과 열국 경쟁에서만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변동 역시 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⁶⁶⁾ 부국강병을 지향하는 강력한 체제 구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군주권의 물질 기반확보가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이 군주권에 의한 山林藪澤의 家産化이다. 즉 종래 공동체적 규제 하에 공동 이용되었던 山澤之利가 점차 군주권의 私産으로 전환됨으로써 전국시대 이후 전제군주권의 형성에 중요한 경제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산림수택은 본래 제사와 군사를 공동으로 하는 씨족제적 읍공동체의 田獵 장소로서 중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공동체의 수장은 씨족 구성원을 이끌고 전렵을 행함으로써 兵事를 익히는 동시에, 사냥한 획득물 중 大獸는 공동체의 제사를 위한 공물이나 군사 자재에 충당하고, 나머지 小獸는 읍인에게 분배하였다. 이와 같이 산림수택의 이용은 읍공동체의 규제 하에 있었고, 그를 대표하는 자가 공동체의 수장이었다. 그러나 씨족 공동체의 해체에 따른 國 체제로의 변환과정에서 公이 그 규제권을 자신의 가부장적 영유권으로 전환하여 산림수택을 독점 이용함으로써 점차 권력을 강화시켜나갔다. 그리하여 춘추 중기 이후 전란이 격화되면서 산림수택은 직할 상비군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군사자재의 공급원으로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각국 제후들의 횡포는 극에 달했고, 백성들에 대한 수탈은 더욱 더 가혹

66) 許倬雲, 「東周到秦漢: 國家形態的發展」 『中國史研究』, 1984, p.93.

해졌다. 맹자는 “군주의 푸주간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있는데도 백성들은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다.”⁶⁷⁾고 함으로써, 이러한 일이 몽둥이와 칼로 백성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당대의 세태를 비판하였다.

3. 초안정시스템[의식구조의 변화]- 사회구조 재편성을 위한 상앙의 법제

기존의 연구는 전국시대 각 제후국은 민의 효율적 지배와 착취를 위해 변법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부국강병을 이룩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그 초점을 맞추어 왔다. 상앙의 변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평가되어 왔다. 이들은 상앙의 1차 변법이 효율적 지배를 위해 연좌제와 십오제를 실시하였고, 2차 변법이 효율적 착취를 위해 개천맥⁶⁸⁾, 제원전⁶⁹⁾, 간전령⁷⁰⁾을 시행하였던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상앙 변법의 의도는 일원적 법치질서를 바탕으로 하여 씨족공동체 해체 이후 방치, 누적되어 온 사회적 모순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소농민에게 균등한 토지점유와 안정적 재생산구조를 보장하면서, 이들은 호적제의 편성 하에 齊民으로 일률 파악함으로써 국내체제를 안정시키고, 군주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제의 민을 최대한 확보하여 열국간의 군사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67) 『맹자』, 「양혜왕4」, “以刀與政 有以異乎 曰 無以異也 曰 庖有肥肉 廄有肥馬 民有饑色 野有餓殍 此 率獸而食人也.”

68) 천맥은 240보 1무를 단위로 하는 경지이다. 그러므로 개천맥은 천맥에 의한 경지의 구획정리 조치이다. 개천맥의 결과 부세가 공평해지고, 민의 업을 안정시키는 성과가 있었다.(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편, 『강좌중국사1』, 지식산업사, 2007, p.139.)

69) 제원전은 호당 노동능력과 휴경농법의 고려 하에 확립된 토지정책이다. 상앙은 이를 통하여 소농의 안정적 재생산에 대한 배려와 백성의 노동력의 효율적 통제 및 극대화를 지향하였다.(위의 책, pp.140-141)

70) 간전령은 황무지 개간책이다. 상앙은 수전체제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인구증가에 따른 수전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광대한 경지확보를 위해 간전령을 반포하였다.(위의 책, p141)

것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상앙 변법은 단순히 백성의 착취와 통제를 위한 내용과 목적으로만 점철되어 있지는 않다. 그는 당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통치자의 횡포와 권력남용에 따른 사회질서의 붕괴에 있다고 보았다. 이는 불완전한 통치자의 양면적 속성에서 기인한 문제이다. 즉 통치자는 권력의 행사를 통해 통치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 존재인 동시에, 그 자신의 사적 이익도 함께 추구하는 개인이기도 하다. “법에 의지하지 않아도 공정무사한 통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요임금뿐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요임금은 아니다.”⁷¹⁾라는 상앙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주는 법제정권과 집행자로서의 위상에 앞서 이기적 욕망으로 전도될 수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통치자는 어떻게 개인적 이익 추구에 함몰되어 합리적 행위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백성을 통제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 중 하나는 통치의 합리적인 구조화이다.⁷²⁾ 상앙은 인간 본성이 이기성에 경도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권위의 원천을 신뢰할 수 없는 인간본성에 의거하기 보다는, 객관적 기준으로써 법에 종속시키는 것을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⁷³⁾

백성을 제압하는 근본은 백성을 통제하는 데 있으니, 누가 그들을 통제할 수 있겠는가? 백성을 제압하는 근본은 법이다. 그러므로 잘 다스리는 사람은 법으로 백성들을 제약하며 그렇게 되면 명성과 땅이 더해지게 된다.⁷⁴⁾

상앙은 법을 정치의 근본으로 파악하였다. 즉 상앙의 법치는 군주의

71) 『商君書』, 「修權」, “不以法論知能賢不肖者 惟堯 而世不盡爲堯.”

72) 윤대식, 「상앙의 법치주의에 내재한 정치적 의무」, 『한국정치학회집 38집』, p.8.

73) 윤대식, 「상앙의 법치주의에 내재한 정치적 의무」, 『한국정치학회집 38집』, pp.24-25.

74) 『商君書』, 「劃策」, “故勝民之本在制民...其孰能制之 民本 法也.”

도덕성 완성여부나 천명과 같은 신비적인 권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백성의 복종과 순응을 가져올 수 있는 객관적인 통치 기제의 구축을 목적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⁷⁵⁾

또한 상양의 법치는 기존 귀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의 독점과 기밀성을 공개성으로 전환시켜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공정무사성을 확보하는 것을 제 일의 목적으로 하였다. 즉 상양은 壹賞壹刑의 내용으로 구성된 법치야말로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의 이기성을, 신뢰할 수 있는 합리성의 범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제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壹賞을 통하여 이기적인 인간에게 이익, 녹봉, 관직, 작위가 오로지 전쟁의 공로에 의해서만 나오고, 그 밖에는 달리 베푸는 기준이 없게 함으로써 모든 백성이 동등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壹刑을 통하여 형벌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등급을 따지지 않는 법의 공정성과 엄격성⁷⁶⁾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법 적용 대상에 군주도 포함시킨 상양의 파격적인 조치이다. 이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객관적 규준으로서의 법이 원래의 목적대로 공정무사성을 확보하도록 하기위한 조치였다. 상양이 기획했던 법제는 새로운 통치기제로서 법치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상벌의 수단으로서 형법의 의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식과 사회전체의 개혁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⁷⁷⁾

이와 같이 상양은 객관적이고도 공정무사한 법제를 통하여 사회구조를 재편성하고자 하였다. 당대 대부분의 법가들은 강력한 군주권을 통하여 부국강병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상양은 군주조차도 뒤흔들 수 없는 강력한 법제 시행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룩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75) 윤대식, 「상양의 법치주의에 내재한 정치적 의무」, 『한국정치학회집 38집』, p.25.

76) 『목자』, 「賞刑」, “所謂壹刑者 刑無等級.”

77) 벤자민 슈워츠 지음, 나성 옮김, 『중국 고대 사상의 세계』, 살림, 1996, pp.452-456.

있다. 그는 강력한 나라는 강력한 군주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군주까지도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혁신적 법제시행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VI. 나가는 말

본고는 先秦時代 중국사상사에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주된 통치기제가 ‘책임성’임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기존 연구 성과들처럼 선진시대의 사상사를 殷代-西周時代-春秋時代-戰國時代로 나누어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이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다보면, 각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요소들을 놓치는 과오를 저지르게 된다. 그러나 선진시대의 사상사를 ‘책임성’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고찰하게 되면, 기존 연구들에서 간과했던 요소들을 재발견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정체제에 놓여있던 은대의 통치체제 속에서 책임의식이 배태된 양상을 포착하여 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서주시대에 이르러 은말기의 천명의 영원성에 대한 회의감과 통치자의 책임의식 양상을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한 주왕조의 혁신적인 정치기획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주변 신흥강국들의 등장으로 견고했던 주왕실의 통치 질서가 와해되면서 혼란이 초래되자, 제환공은 춘추초기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 요인을 해소시키고 사회를 안정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霸’제도를 제시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환공과 관중이 제창한 ‘霸’가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통치자의 책임의식의 발로로 기획된 정치제도였음을 밝힘으로써, 초기 ‘霸’제도의 의의와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일부’ 통치자의 책임의식은 공자를 통하여 각 ‘개인’의 책임성으로 확대되는 큰 변화를 보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각 개인의 ‘책임성’을 토

대로 화합과 결속[仁]을 이루어내고자 했던 공자의 주장을 중심으로 춘추시대 책임의식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공자 사후, 춘추시대는 각 제후국 간의 생존과 지배를 위한 전대미문의 투쟁이 가속화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을 시도한 묵자의 주장에 주목하여, 그가 당대의 혼란을 종식시켜 안정상태로 회복시킬 통치기제로 공공복리의 실현을 내세웠음을 밝혀냈다.

전국시대에 이르러 상앙은 통치자의 횡포와 권력의 남용에도 흔들리지 않을 객관적 법제를 기획하였다. 상앙은 강력하고도 합리적이며, 공정한 법제 시행의 가능성을 처음 열고, 사회를 재편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參考 文獻>

『尙書』
『左傳』
『論語』
『孟子』
『墨子』
『管子』
『商君書』

其塚茂樹, 『古代 殷帝國』, 동경, 1967.

李居洋, 「對考證管子의 一點看法」, 『管子研究』 제1집, 山東人民出版社, 1987.

朱光潛, 「상층구조와 의식형태의 관계에 대한 질의」, 『중화사원학보』, 1979.

朱寶慶, 『左氏兵法』, 협서인민출판사, 1991.

藏原惟人 지음, 김교빈 외 옮김, 『중국고대철학의 세계』, 도서출판 죽산, 1991.

벤자민 슈워츠 지음, 나성 옮김, 『중국 고대 사상의 세계』, 살림, 1996.

비오티 카우피, 『국제관계이론』, 일신사, 1996.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소 편, 『강좌중국사』, 지식산업사, 2007.

장지글러 지음, 유명미 옮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갈라파고스, 2007.

찰스테일러, 김선옥 외 역, 『세속화와 현대문명』, 「근대성과 세속적 시간」, 철학과 현실사, 2003.

강신주, 『철학의 시대』, 사계절, 2011.

김관도, 유청봉 엮음, 김수중, 박동현, 유원준 옮김, 「중국 봉건사회의 장기 지속 원인에 대한 구조 분석」, 『중국문화의 시스템론적 해석』, 천지, 1994.

민후기, 「중국 고대 ‘聖’ 勢론의 변화와 전제군주론의 형성」, 『동방학지』 138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7.

- 신정근, 「책임적 행위자 용어[自己]의 기원」, 『철학논구』 27집, 서울대학교 철학과, 1999.
-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3.
- 윤내현, 「은문화의 경제적 기반에 대하여」, 『사학지』 10, 단국사학회, 1976.
- _____, 『商王朝史의 研究』, 동인문화사, 1978.
- 윤대식, 「상양의 법치주의에 내재한 정치적 의무」, 『한국정치학회집』 38집, 한국정치학회, 2004.
- 이성규, 『중국문명의 기원과 형성』, 「선사문화에서 상주문명으로」,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 편, 지식산업사, 1989.
- 李愛熙, 「宋代의 天命觀에 관하여」, 『人文研究』 제19집, 강원대학교, 1984.
- 천영미, 「공자의 책임적 자아론의 형성과정」,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 _____, 「선진시대 정국운영 양상에 관한 고찰」, 『한문고전연구』 15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7.

Abstract

*The Aspect of transition of responsibility which was worked in the before
Qin period in ancient China* / Chun Young-m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at the main ruling mechanism which was found in Chinese thought of the Before Qin Dynasty was "Responsibility".

Until now, existing studies divided that age into Eun[殷] Dynasty, Ju[周] Dynasty, and the Warring states period[春秋戰國時代] and studied ancient Chinese thought in the context of history. But if we continue to study according to this pattern, we make mistakes of missing the core factors. So we can fix their characteristics such as Eun[殷] Dynasty is under theocrazi, Ju[周] Dynasty is under Heaven's will, and the Warring states period[春秋戰國時代] is under promotion of morality and powerful legislation to recover the stability in society. But if we investigate the thought of the Before Qin Dynasty through prism of responsibility, we can rediscover overlooking factors in existing studies.

So in this study, I captured an aspect of responsibility which was born in Eun[殷] Dynasty under theocrazi and tried to investigate about that.

Also, in Ju[周] Dynasty ruling system, I found their innovative politics plan. The leader of Ju[周] Dynasty captured skeptical view about eternity of Heaven's will and leader's responsibility in the end of Eun[殷] Dynasty and accepted them very actively. Their trial like this was unheard of plan and established a new direction in ancient Chinese politics.

After Ju[周] Dynasty's ruling order was collapsed, lots of confusions were resulted in. At last the king of Je[齊], Huangong[桓公], suggested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4S1A5B5A07040159)

** Lecturer of Sungshin Women's Univ. / rhodachun@gmail.com

Hegemony[霸道] to recover stability in society. So in this study, I tried to investigate that Hegemony was planning politics system by expression of leader's responsibility, not dogmatic military power. Through this process, I could find the serious meaning and role of Hegemony which was run by the king of Je[齊], Huangong[桓公].

Confucius[孔子] expanded responsibility from partial leaders to each person. So in this study, I tried to investigate the aspect of responsibility in the Warring states period[春秋戰國時代]. And then I found that the unity of society could be achieved on the basis of each person's responsibility.

After Confucius' death, lots of fights broke into for survival and domination in the Warring states period[春秋戰國時代]. Mozi[墨子] thought that Confucianists lost their will and ability for the Confucius' Benevolence[仁] realization. Because they were indulged into excessive etiquette, music, and ceremony, they lost the essence of Confucius' thought. So in this study, I tried to focus on Mozi[墨子]'s innovative system and found that he suggested the realization of public welfare as a solution to recover stability in society.

In the end of the Warring states period[春秋戰國時代], unshakable legislations by tyranny of leader and abuse of power were asked. So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about legislation of Shang Yang, school of law[法家]. And then I found out that his legislation was very different from Han Fei Tzu[韓非子]'s. Shang Yang's legislation is powerful, reasonable, fair, and it had a great achievement about enforcement of fair law at the first time in ancient China.

【Key words】 Responsibility, Hegemony, Unity, Welfare, Righteousness.

투고일 : 11월 23일, 심사완료일 : 12월 19일, 게재확정일 : 12월 19일
